

석도는 독도로 간 것이 분명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자신을 찾아오도록 한 것일까? 의문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아까 하얀 마스크 아저씨가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석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한 통 남겼다고 전해 받은 봉투 한 장. 봉투 속에는 석도가 남긴 조금 젖은 편지와 독도의 바위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석도가 남긴 편지

안녕 친구들

즐거운 여행은 하고 있어? 난 뱃멀미가 나서 조금 고생은 했지만 선실 밖에서 시원한 바람도 좀 쐬고, 파란 바다도 구경하다 보니 한결 나아졌어. 그렇게 포항에서 출발한 지 1시간 20분 만에 독도 근처에 도착했지만, 듣던 대로 독도에 발을 내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파도가 매섭게 너울져서 배가 선착장에 바로 정박할 수가 없어서 우리 배는 독도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기로 했어.

선착장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뱃머리를 돌려서 처음으로 만난 바위는 사람 얼굴 옆모습처럼 생긴 얼굴바위였어. 마치 독도를 지키는 수호신의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 그리고 이어서 독립문 바위를 돌아가면 한반도 지형을 꼭 빼닮은 한반도 바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번째로 만난 바위는 닭 바위인데 마치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선 사진으로도 익숙하게 봐왔던 삼형제굴바위를 보았지. 삼형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기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라고 선장님께서 말씀해주셨어. 곧바로 우뚝 솟아있는 쫓대바위로 볼 수 있었어. 쫓대모양이라고 했지만 웬지 내겐 엄지를 치켜세우고 “최고!”라고 하는 듯했지 머야. 하하. 그리고 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예전에 강치들이 자주 나타났다는 가제바위가 있었어.

“가제면 바다가재 인가요?”라고 여쭙었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 ‘가재’가 아니고 강치의 다른 이름인 ‘가제’라고 하셨어, 그래서 가제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독도엔 강치가 사라진지 오래라 만날 수는 없을 거야.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서 만들어지던 흰 거품 사이로 혹시나 강치들이 머리를 꼭 내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웬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마지막 물 마시는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바위를 돌아서 선착장으로 돌아왔을 때, 다행히도 파도가 잠잠해져 배를 정박할 수 있었어. 무사히 선착장에 내리면서 든 생각은 어쨌면 독도가 자기 바위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잠깐 심술을 부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

P.S.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싶지만,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먼저 장소를 옮겨야 할 것 같아. 대신 많은 도움을 주신 선장님의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 한 번 연락해봐. 그럼 날 찾을 수 있을 거야. 기다릴게~

*선장님 전화번호 : 010 - ■■■■■■ - ■■■■■■

물에 번져 지워진 전화번호

010-□□□□-□□□□